

공동체 소식



부활 제5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 **오늘은 ‘부활 제5주일’ 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 **5월은 ‘성모성월’ 입니다.**

-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는 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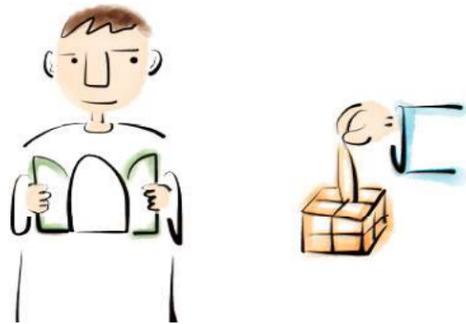
■ **‘성모의 밤’ 미사**

- 일시 : 5/16(화) 저녁 7:30.

■ **북미 중남미 지구, ‘남성 제15차 꾸르실료’ 안내**

- 일시 : 2017/5/25(목)-28(주일) 3박4일
- 장소 : Holy Name Passionist 피정센터, 휴스턴.

■ **‘재무위원’ 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신청은 평협회장님께 합니다.**



구원은 우리보다 앞선 것에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삶을 긍정하고 그 존재를 지탱해 주는 근원적인 선물에 개방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은 바로 사도가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선물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에페 2,8)

「신앙의 빛」 19항 | 그림 임의준 신부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34	513	170	134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정예진 한나 문예나 요안나	이원준 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금 주	‘어머니 날’, 아버지들 봉사
차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헌금 봉사자**

금 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 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5/7	50명	214달러	855달러
박재천, 이영민, 김태중, 정수한, 현주용 (총 5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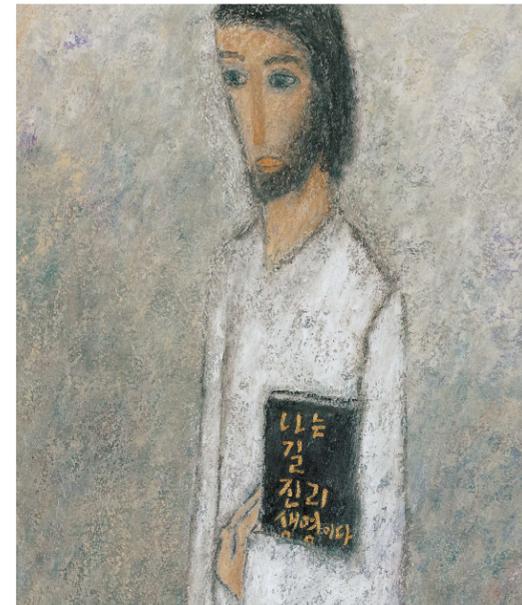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우리 스승이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느님께서는 선택되시어 살아 있는 주춧돌로서 하느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선택된 겨레,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림 묵상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 14,6)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참된 말씀이며,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삶의 전부가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하고 경청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당신 모습으로 닮게 해주십니다.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6,1-7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다.>



-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제 2 독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2,4-9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12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쉐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도들은 초세기부터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올바른 가르침들을 전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1베드 2,9)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일곱 부제를 뽑은 것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도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배급에 출대하는 일이 없도록 식탁 봉사만을 위해 평판이 좋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선택된 일곱 봉사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들의 희생과 사도들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게 되었고, 제자들의 수도 늘어났으며, 사제들의 큰 무리까지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사도 6,1-7).

이렇게 시작된 교회의 복음 선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사도들의 모범에 따라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와 시대의 징표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결정해 왔습니다. 오늘 2독서와 복음 말씀은 초대 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 공동체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먼저, 2독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살아있는 돌이자 하느님께 선택된 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돌을 바탕으로 영적인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칠 때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요, 겨레요, 사제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무는 이들입니다.

오늘 복음 역시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모든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어법에 따라 이 표현을 다시 읽으면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길”, 곧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아버지 안에 계시고, 생명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당신을 알고 당신 안에 머무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참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당신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하느님을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 나가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그런 이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아니 그런 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야말로 참으로 선택된 겨레,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그분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돌 위에 서서 그분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을 찾음으로써,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교회와 세상의 필요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우리도 그들의 모범에 따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름으로써, 선택된 겨레요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분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 영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교중미사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사(Missa)라는 말은 라틴어의 ‘Missa’를 음역한 데서 유래합니다. 라틴어 미사(Missa)는 ‘보내다’, ‘파견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 미테레(Mittere)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기쁨을 나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파견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원래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미사를 거룩한 잔치인 식사 형태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빵의 나눔’ 또는 사랑의 잔치인 ‘아가페(Agape: ‘조건 없는 사랑’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라고 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사도 2,46)

2~3세기부터는 감사의 뜻으로 미사를 에우카리스티아(Eucharistia: ‘감사를 드린다’는 뜻의 그리스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사 중에 교중(敎中)미사는 어떤 미사인가요? 교중미사란 본당 사목자가 매 주일 신자가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개별적인 미사 지향 없이 모든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바치는 미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미사(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미사), 연미사(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한 미사)는 교중미사가 아닌 다른 미사 때에 신청해야 합

니다. 이렇게 교중미사는 개별적인 지향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 지향을 두며 모든 교우를 주님께 봉헌하는 본당 사제의 감사와 사랑을 얻는 미사입니다. 본당 사목자가 ‘본당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미사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교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본당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같은 빵을 쪼개어 함께 나누며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랑(아가페)과 감사(에우카리스티아)의 거룩한 잔치인 교중미사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참여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시편 133,1)

- 김지영 사무엘 신부



복음묵상

길, 진리 그리고 생명

길을 걷어가는 여행자에게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목마른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이끍니다.
생명은 삶의 길에 핀 아름다운 진리의 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 임의준 신부